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13, 논란 구절

© 2024 Robert Newman 및 Ted Hildebrandt

좋아요, 다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12권의 11번째 단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 유대인 배경, 서사 장르의 주석 소개, 저자와 날짜, 그리고 시놉틱 복음의 특징, 예수의 비유에 대한 주석, 문학 작품으로서의 복음서, 시놉틱 문제,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의 지리, 기적 이야기에 대한 주석, 시놉틱 복음의 성경 신학을 살펴보고,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에 대한 주석, 혹은 더 광범위하게 논쟁과 대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은 예수가 대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응답하는 서사 형태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예수의 연설에 대한 보고와 같은 담론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염려하는 특정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논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무언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의 글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률주의를 다루려고 시도하면서 종교 개혁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고, 새로운 관점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이 그 특정 시기에 유대교도들과 가진 논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글썬요, 우리는 그 특정 것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일이

발생하고,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것들을 보아야 할까요? 반대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종류의 어떤 것에서 왔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알아내려고 하는 다음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예수의 견해이고, 그것은 실제로 당신이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인 우리의 특정 구절이 아닌 다른 구절을 보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이 제 관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엉망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원한다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것을 비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다섯 번째 사항은 예수께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반대자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아마도 그 중 일부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므로, 예수의 반대자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실제로 있는 곳에서 그가 있는 곳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 번 제기되는 것은, 이 경우 예수께서 원래의 청중이나 반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의 몇 가지 단계를 생략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넬 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을 때 저널 논문을 쓰면서 저자들은 이 방정식을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계를 생략했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그 단계들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몇 가지 단계를 생략하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하며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시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원래의 반대자들과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마치 고대의 관점이 하나의 지평이고, 우리는 그 관점을 가져와 우리의 지평에 놓고, 우리가 성경적 자료를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공정한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기적과 비유에서 했던 것처럼, 저는 공관복음서의 논쟁과 대화에 대한 설명을 일종의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르에 어느 정도 속하는 구절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중 하나는 예수와 그의 반대자들 사이의 논쟁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페리코페 사건, 우선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그는 바리새인들과 기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유혹이 있는데, 광야에서의 유혹에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와 논쟁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돌려놓으려고 했는지 보여줍니다. 적어도 5장 17절에서 47절까지의 산상수훈은 분명히 어떤 종류의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원하더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말씀되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양한 구약 성경 구절을

어떻게 다루거나 다양한 구약 성경 구절을 확장하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글썄요, 이것이 그들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환자에 대한 대화 논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는 대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마비환자 치유.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그를 지붕을 통해 내려놓은 장면이고,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에게 아들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매우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논쟁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부르심은, 아마 더 많은 대화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같은 세 장에 금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소녀와 병든 여자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질문,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는 안식일 논쟁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셨고, 그의 제자들은 곡식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두고 까는 일로 보았을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엘제불의 논쟁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소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17장에 성전세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보다 나중에 나오는 동방박사에서 카이사르에게로의 구절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반 세켈 성전세를 모으러 다니며 기본적으로 예수가 성전세를 내는지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글썄요, 물론이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몇 분 또는 한 시간 정도 후에 예수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가 그를 먼저 때리며, 땅의 왕들이 자기 왕족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두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에 세금 면제를 받은 전형적인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들들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나가서 베드로가 나가서 이 물고기를 잡으면 예수와 베드로의 성전세를 낼 적당한 크기의 동전이 입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위대인가에 대한 논쟁은 실제로는 자세히 듣지 못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혼 문제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질문,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질문,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어머니의 요청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입니다. 그 후에 예수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몇 분 전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결혼과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은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런 다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반대 질문,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묻습니다. 조상은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므로 다른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을 예언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대화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체포, 같은 장. 산헤드린, 산헤드린 앞의 예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마쳤으므로, 이제 그 복음서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12살 때의 예수, 누가복음 2장. 나사렛에서의 예수의 배척, 누가복음 4장. 큰 물고기 잡기, 누가복음 5장. 예수가 기름을 부음, 누가복음 7장, 36-50장.

그는 두 번이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 경우이고, 이 사람은 그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그의 발에 울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의 주장 중 하나에 대한 꽤 놀라운 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온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섯 가지 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바보의 비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의 불구자.

좁은 문, 누가복음 13장. 여우 헤롯, 누가복음 13장.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 누가복음 14장.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 누가복음 15장. 바리새인과 돈, 누가복음 16장. 열 명의 나병환자, 누가복음 17장.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예루살렘의 딸들, 누가복음 23장. 두 도둑, 누가복음 23장.

에마오로 가는 길,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그것들을 훑어보면서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것들 중 일부는 기적이고, 일부는 비유이고, 일부는 뭔가 다른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은 한 번이든 아니든 대화나 논쟁을 수반합니다.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의 기적은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예수의 비유는 종종 어떤 종류의 논쟁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베엘제불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14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악마가 나와서 병어리가 말을 하자 군중이 경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반응 등을 포함해서, 우리는 일종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것에 대한 소개일 뿐입니다.

15절,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의 왕 베엘제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그에게서 표적을 구하거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와 싸우는 모든 왕국은 황폐해지고, 다른 집에 맞서 싸우는 집은 무너집니다.

이제, 만일 사탄이 자기와 갈라진다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네가 말하기를, 내가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제, 내가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네 아들들은 누구로 쫓아내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마당을 지킬 때는 그의 소유물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 그는 자신이 신뢰하던 갑옷을 벗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거나 무기를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흠는 자니라.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그는 물 없는 곳을 지나가며 안식처를 구하지만 찾지 못하고, "내가 떠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청소되고 정돈된 것을 보고, 가서 자기보다 더 나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오는데, 그들은 와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더 나쁘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이 젖을 먹인 젖가슴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 이다.

그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리스인들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구절 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통치자 베엘제불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을 살펴보면, 그들은 바리새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서기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꽤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구절을 읽고 있다면, 복음서에서 흔히 있는 일인 평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읽고 해석에서 평행 구절 중 하나와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것은 일종의 1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보주의자들이 역사와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한 이론 때문에 항상 관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 그를 시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문맥을 넘어 29절로 연결되는데, 거기서 다시 등장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19절에서 그들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은 누구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if 구조의 좋은 예이며, 당신의 오래된 문법 중 일부에서는 사실 if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문법가들은 그것이 사실 우리가 논리적 if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것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있을 때마다 제가 21절의 시작 부분을 번역한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며, 글썄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 사람이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관사의 일반적인 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비유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리스어에는 힌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나타나는 과거완료에 있는데, 그는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그리스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24절에서 부정한 영에 대한 정관사의 일반적인 용법을 얻었고, 저는 그것을 부정한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절에서 일어나는 주목할 만한 그리스어적인 것들을 꽤 잘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펴본 다음 것은 이 특정 사건의 서사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암시적인 대화가 있는 서사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에 대한 예수의 응답이 이 모든 일의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자궁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일찍이 사인을 구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 통로를 지나자마자 그것을 집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복잡한 대화를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군중에게 연설하고 있고, 군중 속에서 여러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사의 요소는 배우나 캐릭터입니다. 글썬요, 예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적대자들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있습니다. 사건과 행동.

예수께서 귀신 들린 병어리를 고치신다. 반대자들은 그가 베엘제불의 힘으로 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돌아와서 베엘제불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힘으로 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합니다. 그 여인은 그의 어머니를 축복하며 말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 우리가 길을 멈춘 곳에서 예수는 표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장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거리. 글썬요, 예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그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반대와 예수를 불신하려는 시도는 아마도 답을 얻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여인의 발언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 다시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두세 가지 예를 가지고 있는데 ,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멀어지게 하고, 청중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형제와의 분쟁에서 예수님이 중재해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있는 논란. 베엘제불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걸 제가 공부지에 쓴 질문들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베엘제불은 누구인가요? 예수의 반대자들은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글썬요, 우리의 서사 자체에서 베엘제불은 귀신의 통치자로 식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동적으로 사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탄은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그 아래에 어떤

로라르키 예가 있을 수 있거든요 .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이름은 군주를 뜻하는 표준어인 바알에서 유래했는데, 신의 이름이 되었거나... 네, 아마 다른 신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식별된 신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바알 신은 제불과 합쳐져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수세기 동안 L 대신 B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베엘제불과 베엘제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의미로는 오물, 오물의 군주, 당연히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고, 군주 왕자, 거주지의 군주 등이 있습니다.

베엘제불이 사탄의 동의어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악마들을 지배하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바울이 한 말에서 사탄과 악마의 권세가 다양한 종류의 거짓 종교 뒤에 있다는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대자들이 예수가 사탄의 힘을 사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믿는 것이기 때문이겠지만, 또한 군중에게 예수를 불신하게 하려고 합니다. 반대자로 나선 바리새인이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 서기관의 관점에서 후퇴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가 수 세기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큰 문제는 예수님의 기적을 분석해보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썄요, 그런 배경은 예수님의 대답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이 그에게 악마의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당신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 전에 비 카리스마파가 카리스마파에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비 카리스마파는 기적이 행해지면 여전히 의심을 품고, 물론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그것이 공평한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루고 있는 논란은 무엇일까요? 글썬요, 정말 꽤 간단합니다. 질문은 예수님의 힘의 진짜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의 반대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글썬요, 이미 몇 번 지적했듯이, 반대자들은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24에서는 그들을 바리새인으로 밝히고, 마가복음 3:22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받아들여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질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자신의 주장에서 어떤 단계를 생략하셨는지, 상대방이나 청중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생략하신 곳을 찾을 수 있습니까? 글썬요, 저는 17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제 학생들에게 하라고 촉구한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별개의 주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구절들을 꺼내서 다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열된 왕국에서 나온 어떤 종류의 주장 인 듯합니다 . 그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서, 자기와 분열된 모든 왕국은 곧 허무한 것이고, 자기와 분열된 집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 이제, 사탄이 자기와 분열된다면, 그의 왕국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설명은, 당신이 베엘제불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군중 속의 어떤 사람들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9는 약간 다른 주장인 듯합니다. 제 말은, 이것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저는 그것을 당신의 엑소시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베엘제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의 아들들은 누구로 쫓아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들들은, 아시다시피, 당신의 제자들 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엑소시스트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엑소시즘이 일어났다고 언급합니다.

그의 예는 실제로 에세네파와 연결되지만, 바리새인들도 그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저는 이 주장에 대한 라벨로 왕국이 왔다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 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자면, 아시다시피, 만약 내가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왕국에 오는 것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경 신학에 대한 논의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공관복음서에서, 이것은 왕국이 왔다는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그런 다음 21절에서 22절까지, 저는 강하고 더 강하다고 표시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마당을 지킬 때는 그의 소유물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 그는 자신이 믿었던 갑옷을 벗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던 전리품, 즉 재산이나 무기를 분배합니다. 23절은 중립성이 없는 또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흠는 자입니다. 그런 다음, 24절에서 26절까지 다소 당혹스러운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영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그는 물 없는 곳을 지나며 안식처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는 말하길, 내가 떠난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청소되고 정돈된 것을 보고, 가서 자기보다 더 나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오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머무른다.

마지막 상황에서 이 남자는 첫 번째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기적을 사탄적이라고 변명하려는 상대방의 전술에 대응한다. 그들은 이와 비슷한 것을 주장하는 듯하다.

그래서, 원한다면 단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17, 18절, 분열된 왕국.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볼 때, 좋아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신 앞에서 군대를 나눌 여유가 있을까요? 고대사와 현대사 등의 전투를 살펴보면, 종종 영리한 전략가는 군대를 나누어서 그중 한 명을 어딘가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효과가 있지만, 상대 장군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영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고, 일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군대의 움직임을 숨길 수 있는 인간 장군이 아니시거나,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자신을 파괴하실 것이라는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특정 일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전한 일,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당신의 엑소시스트들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어떤 근거로 나의 엑소시즘과 당신의 바리새인 엑소시즘의 엑소시즘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엑소시즘이 더 강력합니까? 그들은 더 효율적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신으로부터 일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들만큼 강력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잘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20절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경쟁하던 출애굽기 8-19장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기를 데려오도록 허락하거나 인도하셨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따라올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며, 그것을 사탄적인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근거에 따라 반응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점점 더 강해지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능력은 무장한 전사가 다른 전사에게 패배하고 그의 재산을 약탈당한 것처럼 예수가 사탄을 물리치고 약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탄의 포로들을 데려가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23, 저는 이미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23, 이 전쟁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당신은 신의 편에 서거나 사탄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24, 26절은 여러 면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나는 내 구절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다시 정리할 수 있을지 봅시다. 그럴 것 같아요.

24절에서 26절은 일종의 서사입니다. 음,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지나며 쉴 곳을 구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돌아와 보니 집이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고, 자기 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유처럼 들리는데, 귀신 들림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몇 군데에서처럼,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집으로 묘사되고, 귀신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의 현재 몸을 천막으로, 부활한 몸을 집으로,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그 안에 거주하는 영혼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우화는 악마의 귀환을 저항할 힘이 그 안에 없다면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비유일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비교는 이스라엘이나 그가 말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거부한다면, 악마의 세력이 돌아올 때 압도당할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약간 까다롭지만, 저는 이 특정 반응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마지막에 일종의 경고가 있는 셈입니다. 27-28절에서 여인의 발언과 예수의 반응이 여기에 들어맞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페리코페, 새로운 사건인가요? 글썄요, 이게 새로운 사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짧으니까요.

16절 외에도 표적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논의하는 구절 이후 29절과 연결되는 듯합니다.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사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페리코페로 나누는 우리의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인위적일 수 있으므로,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페리코페의 마지막 또는 두 번째 마지막 항목이라면, 나머지와 연결하면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가 메시아를 낳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글썄요, 한 여인이 그것을 제기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굴욕을 당하는 동안, 그의 잉태에서 부활이나 승천까지, 당신이 원한다면, 그는 항상 자신의 신성한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가 던진 놀라움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에 잘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계속해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다른 두 번 일어났듯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을 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메시아와 가깝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마리아론에 대한 좋은 구절이 아니지만, 그것이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읽은 것은, 육체적 탄생보다는 순종이 중요하고, 육체적 의미에서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보다는 예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며, 하느님과의 적절한 관계는 메시아를 낳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지에 물었던 마지막 질문은, 오늘날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어떤 적용을 보십니까? 글썄요, 살펴보죠. 17절에서 22절까지의 주장을 요약해서 여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위해 꺼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기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물건이 엉망진창이야, 옮겨 다니면서. 좋아, 여기 있어. 분열된 왕국, 너의 엑소시스트, 왕국이 온다, 강하고 더 강해지길.

좋아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음, 17절에서 22절까지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가 속한 특정 집단에 대한 편파성이나 특별한 변론보다는 건전한 판단을 사용하고,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증거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모든 연령대에 좋은 조언입니다. 음,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두개인들이 견지했던 신학적 견해 중 일부와 바리새인들이 견지했던 신학적 견해 중 일부에 반대했고, 신을 따르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던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자신의 기독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지했던 어떤 것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때때로 그런 일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증거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3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중립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때도, 오늘도 아닙니다.

24절에서 26절은 우리가 가진 축복은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7~28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구절 중 어느 것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많은 작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말했듯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나 설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업무와 더불어 이전보다 구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세션에서 뵈겠습니다.